



APEC/PECC KOREA NEWSLETTER



한국APEC연구컨소시엄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TEL : 3460-1031 FAX : 3460-1133
APEC 문의 : kslim@kiep.go.kr | KOPEC 문의 : kopec@kiep.go.kr

■ 발행인 : 채 욱 ■ 편집인 : 정 철

Vol. 15. No. 2. 2012년 6월

2012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의 주요 논의주제

▶ 무역투자자유화와 지역경제 통합 강화

FTAAP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지시, 규제수렴과 모범규제관행 이
행 촉구, 표준적합성 개발 노력 강
화, APEC 환경상품리스트 개발, 에
너지안보와 APEC 내 에너지집약
도 감소를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
환 촉구, APEC 투자원활화 실행계
획의 이행 촉구

▶ 식량안보 강화

카잔 선언문의 이행 평가, '아태지
역 식량안보 정보플랫폼' 구축, 사
회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제공 모범
사례 공유, 불법어획금지 노력 촉구

▶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생산망 참여확
대 노력 강화, 지능형 공급망 구축
관련 논의의 진전 촉구, 통관절차
의 간소화·원활화·조화 노력 촉구

▶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2013년 최고과학자문관 회의 개
최, 혁신정책파트너십 구축, 역내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교육프로그
램 개선, 제1차 청년기업인네트워
크 개최

2012 Meeting of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2012 APEC 통상장관회의 (2012. 6. 4~5, 러시아 카잔)

2012년 6월 4~5일 러시아 카잔에서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통상장관들은 유로존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아태지역이 세계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호주의를 저지하고 무역투자환경을 개선하며 역내공급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DDA 협상 진전과 보호주의 경계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과 통관절차 및 문서 간소화를 통한 공급망 개선사업, 중소기업들의 녹색혁신 장려를 위한 정책 사례 공유사업인 '그린 이니셔티브',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개최 등 역내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혁신을 위한 한국의 주도사업과 노력을 소개하였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하였다.



무역투자자유화와 지역경제통합 강화

APEC 통상장관들은 보고르 목표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다자무역체제와 FTAAP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사업(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을 지지하였다. 더불어 '정보기술협정(ITA: 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의 확대 논의가 진전되었을 환영하였다. 러시아는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 FTA 투명성을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비스무역의 원활화 및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APEC 서비스무역 접근요건(STAR: APEC Services Trade Access Requirements)’의 확대를 환영하였다. APEC ‘화학규제 실행계획(Regulatory Action Plan for Chemicals)’ 등 화학규제자(chemical regulators)간 협력 확대를 환영하고, APEC 회원국의 ‘국제적으로 조화된 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이행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APEC 회원국 간 표준(standard) 관련정보를 공유할 것을 독려하고, 스마트그리드의 호환성(interoperability) 표준과 녹색빌딩, 태양에너지기술에 관한 작업의 진전을 촉구하였다.

2011년 호놀룰루 정상선언문에 따라 통상장관들은 2012년 9월 합동각료회의까지 APEC 환경상품리스트를 개발할 것을 당부하였다. 역내 녹색성장의 증진을 위해 무역과 환경에 대한 지역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치의 무역 제한적 효과를 감소시키고 이러한 조치와 관련정책이 국제무역규범과 합치되도록 하였다. 에너지안보와 APEC 내 에너지집약도 감소를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불법벌목금지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강화 측면이 강조되었다.

통상장관들은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APEC 투자원활화 실행계획(IFAP: Investment Facilitation Action Plan)’을 1) 분쟁해결 메커니즘 개발을 통한 투자환경과 투자보호의 안정성 증진, 2) 신기술을 이용한 투자절차의

투명성·효과성·효율성 제고, 3) 이해관계자와의 건설적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이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0년에 합의된 APEC 투자전략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프라투자에서의 민관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단행하도록 독려하였다. 2012년 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APEC Ease of Doing Business 2012 Stocktaking Workshop’에서의 모범사례 공유와 역량강화활동 추진을 환영하였고, 이를 지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0년에 승인된 ‘APEC 신(新)구조개혁전략(ANSSR: APEC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3 ANSSR ‘중간평가 보고서 템플릿(Mid-Term Progress Report Template)’을 승인하였다.



식량안보 강화

‘니가타 선언(Niigata Declaration)’에 이어 제2차 식량안보장관회의를 계기로 ‘카잔 선언문(Kazan Declaration on Food Security)’이 채택되었다. 통상장관들은 이 선언문을 통해 농업생산과 생산성 증대, 무역원활화와 식량시장 개발, 식품안전(food safety)과 품질 개선, 지속가능한 생태계 관리, 어업에서의 불법·미보고·규제되지 않은(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무역 척결을 지지하였다. 농어업 관련 투자 촉진과 혁신농업기술 채택을 통한 생산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토지·어업·벌목권의 책임 있는 거버

넌스를 위한 자발적 지침(VG: Voluntary Guidelines for the Responsible Governance of Tenure of Land, Fisheries and Forests)’과 ‘책임 있는 농업투자원칙(PRAI: Principles for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에서의 민간투자를 독려하였다. 식량시장의 모니터링을 위한 ‘아태지역 식량안보 정보플랫폼(APIP: Asia-Pacific Food Security Information Platform)’의 구축을 환영하였다. 통상장관들은 식품 품질 관련 국제표준과 국내규제와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APEC 회원국들의 식품안전과 품질에 대한 기술규제, SPS 국제표준 채택을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또한 ‘식품안전 협력포럼(FSCF: Food Safety Cooperation Forum)’과 이에 대한 ‘파트너십 훈련기관 네트워크(PTIN: Partnership Training Institute Network)’의 다각도 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학교급식과 사회 복지 프로그램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제공 관련 모범사례의 공유를 환영하였다. 더불어 불법어획금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안정적 공급망 구축

통상장관들은 공급망 연결사업 등 무역원활화 관련 논의의 발전을 지지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생산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와 ‘공급망의 다양화(diversification of supply chain routes)’ 등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환영하였다. 기술진보에 따

른 ‘공급망 가시성(supply chain visibility)’ 제고와 협력 증진, 조기경보시스템 개발과 위해물질 및 위험상품의 수송관리 개선, 협력업체(하위 공급자, sub-provider)의 역량 증진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급망 가시성 워크숍(Supply Chain Visibility Workshop)’의 권고사항과 ‘지역 물류협력업체(Local/Regional Logistics Sub-providers)’를 위한 역량강화 이니셔티브 등 관련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공급망의 기술성 제고를 통한 지능형 공급망 구축 관련 논의의 진전을 촉구하였고, 통관절차의 간소화·원활화·조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재난대응 고위관리들(Senior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이 ‘민관협력을 위한 역량강화’, ‘비즈니스 지속성(business continuity)’, ‘공급망 복원(supply chain resilience)’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혁신이 APEC 회원국의 주요 성장요인으로 부상하면서 통상장관들은 혁신을 위해 시장의 개방과 경쟁,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혁신여건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3년 최고과학자문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ISTWG: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Working Group)’을 ‘혁신정책파트너십(PPI: Policy Partnership on Innovation)’으로 개편하여 민간과 학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PPI 임무(mandate)를 각료회의까지 개발할 것을 지시하였다. 통상장관들은 2012년 4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혁신과 무역 컨퍼런스(Conference on Innovation and Trade)’의 결과를 포함하여 회원국들이 추진한 효과적·비차별적·시장 주도적 혁신정책을 환영하였다. 이 회의에서 1) 자유·공정·투명·개방의 원칙에 입각한 무역투자시스템과 2) 인적자원개발, 3) ICT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에너지, 혁신주체(innovation actor) 간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012년 5월에 열린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나노기술에 관한 혁신기술대화(Innovation Technology Dialogue on Nanotechnology for Energy Efficiency)’의 결과를 주목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각료회의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 혁신기술대화의 개최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5월 21~23일 경주에서 열린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의 성과를 환영하면서 역내 학생·교수·연구원 등 교육인력의 이동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무역투자 장벽해소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역내 녹색혁신을 위한 그린 이니셔티브를 지지하였다. 한편, 청년 기업가의 경제활동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8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될 제

1차 청년기업가 네트워크(YEN: Young Entrepreneurs Network)를 환영하였다. 2012년 3월에 개최된 ‘APEC 여성 리더십 포럼: 경제성장의 발전소(APEC Leadership Forum on Women: Powerhouse for Economic Growth)’의 결과와 2012년 6월에 개최될 여성과 경제 포럼 준비를 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상장관들은 회원국들에 여성과 경제에 관한 정책파트너십, APEC SME 실무그룹, YEN 간의 밀접한 협력을 촉구하였다.



A P E C

최근행사

2012 Meetings of ABAC 2012 APEC 기업자문위원회 (ABAC) 회의

(2012. 2. 21~24 홍콩/
5. 21~24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7. 16~19 베트남 호치민시)

2012년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회의가 세 차례 열렸으며, 8월 29일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2012년 ABAC 보고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APEC 회원국들이 유동성(liquidity)과 신용 제약(credit constraints) 여건에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ABAC은 이러한 재무조건의 악화와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경기침체로 인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역내 신흥국들의 소비가 위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ABAC은 민간협력력이 분야별 이니셔티브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1. 무역투자자유화

ABAC은 국제무역시스템에서 WTO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WTO DDA의 큰 진전이 없음에 우려를 표하였다.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달성을 위한 모든 중간 과정에 포용성(inclusiveness), 투명성(transparency), 포괄성(comprehensiveness) 원칙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APEC 회원국들이 향후 FTA 논의에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를 포함시키고 과세 및 이전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2. 역내 금융시장의 통합 촉진

ABAC은 APEC 회원국들의 통합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자금시장의 성장 촉진과 시장인프라 발전을 위한 '아태금융포럼(APFF: Asia

Pacific Financial Forum)’의 설립을 지지하여 승인을 권고하였다. 이 포럼은 역내 민관 협력을 증진할 프레임워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단계로 금융시장의 통합과 연계, 역내 수요에 따른 금융규제표준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 증진과 관련하여 2013년 APFF 의제를 개발할 것이 제안되었다.

3. 공급망 연결성 개선

역내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무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APEC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ABAC은 ‘APEC 공급망 프레임워크(APEC Supply Chain Framework)’ 이행을 위한 총체적 접근방식을 권고하였으며, 공급망 모범사례 및 정보 공유와 자료수집 개선,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 역내 공급망 개선을 위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GPS나 Glonass 등 통합위성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2년 9월 정상회의에서 관련 모범사례 공유, 공급망 내 표준화 이니셔티브 이행, 중소기업을 위한 로지스틱스 정보플랫폼 개발, 정보통신 기술시스템의 공통 프로토콜 수립, 비관세장벽 개선 등을 위한 작업에서 APEC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제 및 국내 수송인프라 개선사업을 이행함으로써 아태지역과 타 지역을 연결하는 대체수송루트를 발굴하고 장기적 이익을 도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 인프라 투자 증진

ABAC은 인프라 사업개발과 이행에 있어서 통합적 접근방식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투자를 위한 APEC 고위급 계획 원칙(APEC High-Level Planing Principle for Infrastructure)’ 개발을 제안하였다. 또한 ‘아태 인프라 파트너십(APIP: Asia Pacific Infrastructure Partnership)’을 통해 APEC 회원국과 민간부문 및 다국적 기관이 인프라 금융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2013년까지 APIP 대화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5. 식량안보 강화

ABAC은 APEC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PPFA: APEC Policy Partnership on Food Security)이 역내 식량안보규정의 개발과 이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업분야의 기술 이전센터를 설립하고 식량안보 표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APEC 식량안보 포럼(APEC Food Safety Forum)’의 협력을 강화하고, 저장 및 이동 중 농산물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식량시장 인프라를 개발하고, 수확 후 손실 측정을 위해 일관성 있는 기준을 확립하고, G20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식량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6.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촉진

ABAC은 APEC 환경상품리스트와 관련하여 2015년까지 해당품목의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감축하는 호놀룰루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7. 에너지 안보 대응

ABAC은 에너지 보존 노력 확대와 재생가

능한 에너지원 확보, 천연가스 활용 확대, 핵 안보 협력 등 에너지안보에 대한 다면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였다. 에너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APEC은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환경상품서비스의 무역을 촉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8. 살아 있는 도시 촉진

ABAC은 APEC 회원국들이 도시계획과 인프라 개발에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고 ‘살아 있는 도시(living city)’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환경과괴적인 도시로부터 탈피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 살아 있는 도시에 대한 기준이 도시건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공동체에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녹색산업에 관세 및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폐기물과 탄소감축 관련 규제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9. 기술 확산과 혁신 및 첨단기술 투자 촉진

ABAC은 자발적이고 시장 주도적인 기술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촉진시킬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술 확산을 증진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와 무역장벽 완화를 촉구하였고, 역내 기술공동체 내에서의 일관성 있는 규제 마련과 이해관계자들의 상호파트너십을 지지하였다.

10. 중소기업 발전 지원

ABAC은 재정확보와 국제 공급망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APEC 차세대 상호 관세 데이터베이스(APEC Next

Generation Interactive Tariff Database)’와 ‘APEC 서비스무역 접근요건 데이터베이스(APEC Service Trade Access Requirements Database)’를 개발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APEC 중소기업과 청년기업가 정상회의(APEC SME and Young Entrepreneurs’ Summit)’,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 배양 등 중소기업을 위한 역량개발 이니셔티브를 장려했다.

11. 여성의 경제 참여 증진

ABAC은 여성의 경제참여에 대한 장벽을 낮추기 위한 APEC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따라 APEC 회원국의 각 정부가 ABAC에 최소한 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12. 혁신을 위한 자금 조달

ABAC은 혁신적 아이디어의 탄생에서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APEC 회원국들의 세제 지원, 매칭 펀드, 선택적 바이아웃 프로그램 등 엔젤·벤처 캐피탈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엔젤 투자자 네트워크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혁신 초기 단계의 엔젤 투자자와 중간 단계의 벤처 캐피탈, 최종 단계의 투자은행·상업은행·사모펀드 등 혁신 단계별로 각 참여자들의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

13. 새로운 서비스 의제 착수

ABAC은 민간과 공공 분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을 형성하여 글로벌 서비스무역과 투

자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서비스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개발과 역내 서비스 관련 통계자료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APEC Human Resource Development Working Group)'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내 기술 및 노동력의 도표화 사업을 완료할 것과 이를 추진함에 있어 비즈니스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14. APEC 출장카드 문제 해결

ABAC은 'APEC 출장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의 신청과 갱신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APEC 정상들의 지원이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15. APEC과 비즈니스 간 정책 교환 최적화

ABAC은 APEC 정책입안자와 비즈니스 공동체 간 정보교환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APEC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장관회의에 ABAC의 견해를 꾸준히 제시해왔다. ABAC은 이러한 대화를 지속하면서 APEC의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비즈니스계의 시각과 관점을 접목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향후행사

24th APEC Ministerial Meeting 제24차 APEC 각료회의

(2012. 9. 5~6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연락처: 최성우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02-2100-7653

20th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제20차 APEC 정상회의

(2012. 9. 8~9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연락처: 최성우 서기관 /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02-2100-7653

2013 APEC ISOM

2013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

(2012. 12. 6~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연락처: 외교통상부 경제공동체과

Tel: 02-2100-7653



P E C C

최근 행사

PECC 상임위원회

(2012. 4. 25, 27, 싱가포르)

2012년도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상임위원회 및 관련 회의가 4월 24~28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1년 9월 28일과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었던 PECC 상임위원회 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되고 재무보고 및 2013년 예산(안)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PECC FUND LIMITED의 이사회와 총회를 소집 및 개최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PECC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 및 향후 진행할 프로젝트(안)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예전부터 진행되어 온 간판 프로젝트(Signature Project)에 관해 논의하였고 추후에 진행할 다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멤버들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태지역연례현황보고서

(State of the Region (SOTR) Report)는 지난해 언급되었던 제안이 반복되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PECC 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지난해의 보고서는 석유 산업 및 태평양권 석유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에 초점을 두었고, 올해에는 유로존 위기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2010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던 상임위원회에서 CTPECC는 “Examining the Mid and Long Term Structural Unemployment in Asia-Pacific”이라는 국제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2011년 10월에 26번째 태평양 경제공동체 세미나(Pacific Economic Community Seminar)를 개최하였고, 올 10월에 27번째 세미나를 개최 예정 중임을 알렸다. 아태지역과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에 대해 검토하고 TPP와 ASEAN plus X를 비교 대조할 예

정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지역경제통합과 관련해 미래에 닥칠 기회 및 어려움에 관해 연구할 목적임을 설명하였다.

일본 PEO가 주도하고 있는 “Monetary Policy Regimes” 프로젝트의 경우 지난 3월 전문가회의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양한 국가별 금융 정책에 대해 서로 논의하였고 더욱 탄탄한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에 힘쓰기로 하였다. 9월에 있을 제2차 회의에서는 세계 금융의 연계성과 국내 금융위기 심화 등에 대해 주로 토의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해양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인 “Sustainable Management of Marine Resources(지속가능한 해양에너지 관리)”는 지난 3월에 제2차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외에도 상임위원회 멤버들은 PECC 사무국의 예산 지출 방식에 대한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나라별 및 이슈별로 매우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예산 지출과 관련된 다양한 성격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정형화된 템플릿이 마련된다면 향후 예산지출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PECC-SINCPEC Conference (2012. 4. 26~27, 싱가포르)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와 싱가포르 사무국(SINCPEC)이 공동으로 주최한 컨퍼런스가 4월 26~27일 싱가포르에서 ‘APEC 경

제: 패러다임의 전환(APEC Economies: A Paradigm Shift?)’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본 컨퍼런스는 총 5개의 전체 세션을 통해서 APEC 국가들의 무역자유화, 외채 문제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 기능 협력을 통한 성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경쟁력과 생산력을 상승시킬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미래 APEC의 역할과 PECC와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컨퍼런스에는 주요 연사로 빈센트 콩(Vincent Kong) 브루나이 다루살렘 외교통상부 경제협력부장, 레오니드 모시브(Leonid Moiseev) 러시아 대사, 수지로 우라타(Shujiro Urata) 일본 와세다 대학 교수, 마이클 인라이트(Michael Enright) 홍콩대학교 교수, 존 아빌라(John Avila) 필리핀 통상정책 책임자(USAID Philippines), 무하마드 누어(Muhamad Noor) APEC 사무국 전무, 모니카 오코아 팔로메라(Monica Ochoa Palomera) 멕시코 외교부 국장, 채욱 KOPEC 회장(KIEP 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채욱 회장은 본 컨퍼런스의 제1세션 “APEC 국가들의 무역자유화 심화(Further Trade Liberalization for APEC Economies)” 세션의 발표자로 참석하여 동아시아 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FTA, 동북아시아 경제통합 및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역내 경제통합에 있어 한국의 포지션은 경제통합의 형태 및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한국의 TPP 가입여부는 CJK FTA 및 EAFTA의 진행 경과, 중국 및 일본의 향후 지역정책 및 여타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TPP 가입 양상에 달려 있음을 알렸다.



JANCPEC PEO Structure
Subcommittee Meeting
(2012년 9월 중 일본 오사카)

K O P E C

최근 동향

신임 부회장 및 사무국장 취임

2012년 5월 21일자로 김상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일자로, 정철 KIEP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이 KOPEC 신임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김상겸 부회장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KIEP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외교통상부 통상전문관 등을 역임하고 현재 KIEP 부원장을 맡고 있다.

정철 사무국장은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조지아 공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무역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하고 현재 KIEP 연구위원으로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최근 행사

KOPEC 아·태전략포럼 제1차 회의 (2012. 5. 4)

KOPEC은 '한국의 FTA 정책: 현황과 향후 추진전망'을 주제로 2012년 제1차 아태전략포럼을 지난 5월 4일 조찬회의 형식으로 개최하였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제에 이어 관련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채욱 KOPEC 회장은 한국의 FTA 정책, TPP 등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 FTA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FTA의 협상 전반에 걸쳐 논의하고, 마침 한·중 FTA 협상 개시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었기에 이에 대해 토론하고자 본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박태호 본부장은 지금까지 FTA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한·중 FTA를 통해 새로운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중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한국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EU FTA와 한·미 FTA를 활용하려는 중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호 본부장은 한국과 FTA 파트너의 교역 비중이 34%에 달하며, 현재 발효 중인 FTA는 칠레, 싱가포르 등을 비롯하여 최근에 발효된 미국과의 FTA까지 포함하면 총 8개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비교적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로는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 뉴질랜드, 호주 등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자간 무역 자유화를 위해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FT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게 될 이익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들에 FTA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의 준비로 모범적인 프레임을 갖추고 있는 한·중 FTA의 남은 절차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포럼은 마무리되었다. 끝으로 채욱 KOPEC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해 풍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KOPEC 포럼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임을 공지하였다.



향후 행사

KOPEC 아·태전략포럼 제2차 회의
(2012년 8월 중 서울)

회의 관련 문의사항이나 자료는
KOPEC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OPEC 사무국
Tel: 02-3460-1240 Fax: 02-3460-1133
E-mail: kopec@kiep.go.kr



- APEC Economies: A paradigm shift? (2012)
- State of the Region 2012-2013
- Examining the Mid- and Long-Term Structural Unemployment in Asia-Pacific (2012)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Urban Centers, 2012
- Services Trade: Approaches for the 21st Century (2011)
- Towards a More Resilient Society: Lessons from Economic Crises (2011)
-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Is an FTAAP the Catalyst for One Community? (2011)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11-2012
- Growing APEC Economies: New Challenges and Approaches, 2011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10
- Towards a More Resilient Society: Lessons from Economic Crises, 2010
-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ailand, Narongchai Akrasanee, 2010
- Public Private Partnerships Forum Report, Australian APEC Study Centre, 2010
- Workshop on Measures to Promote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ublic Private Partnership, Australian APEC Study Centre, 2010
- The Globalisation of Education: The Next Wave, PECC & APRU, 2009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Market Volatility and the Food System, Pacific Food System Outlook Project, 2009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9
- Competition among Financial Centres in Asia-Pacific: Prospects, Benefits, Risks and Policy Challenges, KOPEC & ISEAS, 2009
- Competition among Financial Centres in Asia-Pacific: Prospects, Benefits, Risks and Policy Challenges: Synthesis Report, KOPEC, 2009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8
- Labour Mo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Dynamics, Issues and a New APEC Agenda, KOPEC & ISEAS, 2008
- Demographic Change and International Labor Mo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 Implications for Business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ynthesis Report, KOPEC, 2008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7
- An APEC Trade Agenda: The Political Economy of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PECC & ISEAS, 2007

- Guidelines for Effective Public Private Partnerships, 2007
- The Policy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SMEs, 2007
- State of the Region Report, 2006
- The Evolution of PECC: The First 25 Years, 2005
- Towards a Pacific Community: Renewing the Commitment (proceedings of PECCXVI), 2005

- Finance

- Impediments to Cross-Border Investment in Asian Bonds, PECC & ISEAS, 2005

- Trade

- Study on the Mutually Supportive Advancement of APEC's Trade Facilitation and Secure Trade Goals post September 11, 2005
- Papers on World Trade and Investment in Memory of Bijit Bora, 2010

- Outlooks

- Pacific Economic Outlook Structure Project: Macrofinancial Linkages and Financial Deepening in the Pacific Region, 2011
- Pacific Economic Outlook: External Adjustments under Increasing Integration in the Pacific Region, 2009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8-2009: Climate Change and the Food System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7-2008: Linkages to Growing Urban Markets Spur Rural Development, 2007
- Pacific Food System Outlook 2005-2006: A Revolution in Food Retailing, 2005
- Pacific Economic Outlook 2005-06, 2005

PECC, KOPEC 회의 관련 자료 및 발간물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PEC 사무국 (곽소영 연구원) Tel: 02-3460-1240 Fax: 02-3460-1244 E-mail: kopec@kiep.go.kr